

## 평생 교육의 꽃, 문해 교육의 현주소

최유경 안양시민대학 교장

지난 달, 우리 학교(안양시민대학) 초등 학력 인정 과정인 지혜반 학습자들과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일정 중 부산에 있는 유엔(UN) 공원을 방문하여 문화해설사에게 유엔(UN) 공원과 관련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다. 설명 후 학습자인 한 어머니께서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놓인 돌도 나무도 연못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모르고 볼 땐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말았는데, 안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군요.”

난 그때 적잖이 놀랐다. 그리고 다시 깨달았다. 이것이 문해 교육의 힘인 것을! 비문해 성인 학습자는 그들이 살아온 생애 경험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지혜로운 성인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 100명 중 8명이 전혀 읽고 쓰지 못하고 16명은 읽기는 하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우리

나라처럼 고학력 사회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정말일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2008년 국립국어원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읽고 쓸 수 없거나 읽을 수 있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이 26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 학력 미취득자 192만 명, 중학 학력 미취득자 385만 명으로 20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15.7%인 577만 명이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 문해 교육이란 이들과 같이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 한때 ‘문맹자 교육’이라고도 하고, 최근까지 한글 교육이라고 불리던 이 교육은 현재 ‘문해 교육’으로 통칭되고 있다. 과거에는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글을 읽지 못하는 장님’이라는 뜻으로 ‘까막눈’ 또는 ‘문맹’이라고 부정적으로 부르기도 했기에 ‘문맹자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문해 교육’을 좁은 의미에서 ‘문자 해독 교육’이란 의미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해’란 문자 해독이 아니라 문화 이해를 의미한다. 유네스코에서는 “그가 속해 사는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직업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literacy)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문화를 이해하는 능

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비문해자들을 위한 교육이 바로 문해 교육이다.

문해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비문해자의 대다수는 전쟁, 가난 탓에,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중·고령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 새로운 비문해자 집단으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해 교육은 평생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위상을 명확히 하게 되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문해 교육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지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마을 단위로 문해 교실을 열어 학습자들이 문해 교육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초등 학력과 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많은 문해 교육 기관이 재정 지원을 받아 전문 교사의 수급, 표준화된 교재 보급, 시설 개선 등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해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어 올해로 3회째인 ‘성인 문해 학습자 시화 대회’를 보면 문해 교육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다. 시화 대회에 참가하는 학습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들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작품 수준이 우수해 문해 교육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번 시화 대회의 주제는 “문해,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였다. 비문해 학습자들이 문해 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된 경험을 한 편의 시로 진술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 글귀를 비문해 성인 학습자들보다 명확하게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증언해 내는 사람들이 또 있

을까? 그들의 시에 나타난 계속 교육에 대한 기대와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문해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수 학습 전략의 개발, 문해 이후의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 이해 교육으로서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매우 시급하다.

초등 과정 졸업 후 중등 과정 진입이 교육 기관의 부족,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내용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생활 밀착형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수학 5과목 이수로 이루어지는 성인 중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이 학력 취득의 형식적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성인들에게 유의미한 교육이 되고 있는가? 또 중등 교육 과정으로 진입을 원하지 않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이런 과제를 풀어내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학습자도 10인 10색이지만 문해 교육 기관의 교육 환경 역시 10인 10색이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도 존재한다. 좋은 수업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 교실 안에서 여러 단계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안락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둔감해지기도 한다. 학습자들이 교육 환경의 열악함을 참고 견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도 여전히 미흡하다.

문해 교육 현장은 성인 문해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보다 확실히 더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단위 국가사업이 20억 원 내외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아주 대단하고 감동적인 성과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내 나이 벌써 육십이 되었네.  
나는 이제 나비가 되어 외출을 하려 하네.  
노란 나비되어  
나비아, 노란 나비아  
힘차게 날아서  
꽃밭에 앉을까  
고추밭에 앉을까  
배움의 밭에 앉았네.  
예쁘게도 앉았네.  
노란나비아!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렴  
배움의 밭에서 노란 나비아.  
(출처: 안양시민대학 야간반 학습자 시)

이제 글자를 넘어 세상을 향해 외출을 시작하여 자유롭게 마음껏 꿈을 꾸며 그 꿈을 펼치려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펼쳐야 할지 생각해 본다. 과거에 못 이룬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는 문해 교육이 아니라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해, 더 자유롭기 위해 그리고 100세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교육으로서 문해 교육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자료집.  
이천시(2008), 전국문해교육심포지엄 자료집- 문해교육의 전망과 과제.